



취재: 최태원 (홍보부 대리)

# 화재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썬추얼 관광호텔 화재.” 방송 속보뉴스를 통해 전해오고 있는 호텔화재 소식은 또한번 우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는 서울의 대연각호텔 화재를 비롯하여 대구 금호호텔, 부산의 대야호텔 화재사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그동안 대형 인명피해를 빚어낸 많은 호텔화재사고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호텔화재라 하면 이제는 조건반사적 반응을 보일 정도로 심적인 충격이 우리들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썬추얼 호텔 화재사고는 우리들에게 더욱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있다. 평소 비상시에 대비 방화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훈련의 결과로 큰 피해없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 ● 건물개요

서울시내 한 복판, 종로구 장사동 227번지 1호인 본 호텔의 위치를 이야기 하자면 오히려 청계천 3가와 4가 사이라고 말하는 편이 우리 귀에 얼른 들어온다.

지상 9층에 지하 1층, 연면적 2,210여평, 그리고

객실수가 88개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건물로서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지어진 지는 2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오랜 역사를 가졌다.

이곳이 비록 綠園속의 정취는 맛볼 수 없는 위치라고는 하나 바쁜 도시생활속의 안식처로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까지도 많은 애호를 받아가며 견실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다.

## ● 화재발생 및 조치상황

화재가 발생한 지난 5월 16일은 공교롭게도 석가 탄신일인 음력 4월 초파일로 공휴일이었으나 그날도 호텔 근무자들은 거의 출근해 있었다.

오후 2시 30분이 조금 지나서일까? 갑자기 자동 화재탐지설비의 비상벨이 울렸다. 전기실에 긴급히 연락하여 708호실에서 화재가 난 것을 확인하고 각 객실과 소방서에 화재임을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소화작업 및 투숙객의 피난유도에 착수했다.

비상용으로 비치해 두었던 walky-talky를 이용, 각 층 담당종업원에게 일일이 지시하여 투숙객들의 안전대피에 온갖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잔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와 소화전으로 소화작업을 펴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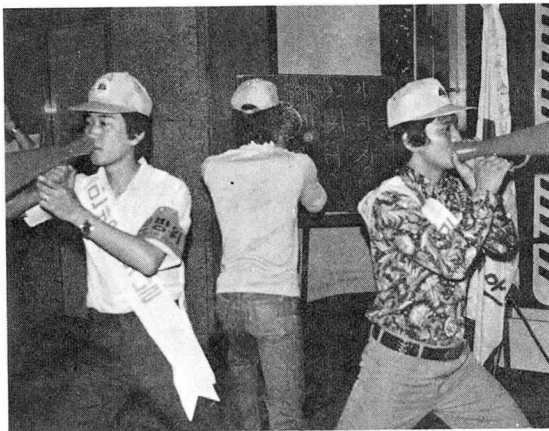
그러나 화재실로부터 계속 뿜어나오는 검은 연기는 상황판단을 흐리게 하여 구조요원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은 평소의 훈련으로 잘 익혀진 화재시의 행동요령에 따라 숨가쁘게 움직였다. 이렇게 정신없이 인명구조 작업과 소화 작업을 펴는 동안 불길은 거의 잡혀갔고 그무렵 긴 급출동한 소방차 20여대의 마무리 진화작업으로 약 35분만인 오후 3시 10분경 불은 완전히 꺼졌다.

사고 당시 종업원들의 총 지휘를 맡았던 호텔의 총무과장 鄭 良柱씨는 그때의 상황에 대하여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고객들 인명안전이 제 생각의 전부라는 것 외에는 여념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종업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두들 저의 지시에 너무 잘 따라주었다는 점입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 뒤 관할 소방서의 관계자들은 당시의 상황에 기민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한 호텔 종업원들에게 찬사와 격려를 여러번 해줬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혼신을 다하여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했던 사투와는 달리 화재원인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한 호텔 관계자에 따르면 708호실에 투숙중이던 프랑스 국적의 여자 무용수가 촛불을 피워놓고 마리화나를 피우다가 환강상태에 빠져 촛불을 넘어 뜨리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며 불이 나자 무용수는 도주했는데 그때 마침 같은 층에 있던 종업원에 의하여 이 사실이 목격되었는데도 프랑스 대사관의 자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로 화재 원인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 ● 피해 및 복구상황

이번 화재로 발화지점인 7층(실제는 6층) 708호는 전소되고 같은 층의 인접객실 일부와 객실 목조 출입문의 대부분이 소실 및 반소되었으며 천정, 복도 등이 소실 또는 그을음으로 오손되었다. 그리고 10명의 외국인 투숙객 중 영국인 3명이 얼굴 손 등에 약간의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큰 사고는 없었다.

본 호텔은 '85년 8월 19일부터 1년 기간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2천 1백 8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그로부터 약 1개월 반 동안 임직원 모두 힘을 합하여 복구에 노력한 결과 지난 7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피해를 그 정도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한대로 우선 종업원들의 투철한 사명감, 숙달된 상황대처능력을 꼽을 수 있지만 그 밖에도 객실 내장재를 불연화한 점, 카펫 등 직물의 방염처리 실시, 경보설비의 완벽한 작동 등 설비의 철저한 유지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곳 총무과장 鄭씨는 지난 10여년 동안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난과 관련한 인명피해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호텔 이용자들로부터 느꼈던 바를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한다.

『대부분의 투숙객은 호텔내에 설치해 놓은 각종 소방시설의 사용방법을 잘 모를뿐더러 유사시에 대비하는 피난통로 등 건물구조에 전혀 무관심한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각자에게도 문제는 있지만 관계 당국은 이들 시설을 설치토록 하는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설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TV 등 매스컴을 통한 범국민적 홍보를 적극 실시해야 합니다. 사실이지, 이들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놓고 적시에 활용치 못한다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평소의 교육, 훈련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 상황에 부딪치게 되면 거의가 침착성을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초기진화의 기회를 놓쳐 결국 많은 인명, 재산피해를 입는 경우를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만큼은 예외였다. 이는 호텔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평소의 철저한 관리와 내실있는 교육, 훈련으로 이루어 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